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두려움에 맞서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

‘두려움’의 사전적 정의는,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다.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해하고 조심스럽다는 것은 소중한 우리의 언행을 구속하는 감성적인 충격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실제로 ‘두려움’에 맞서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 사소한 행복을 깨트리는 ‘두려움’은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돈다.

시험에 대한 ‘두려움’, 취업, 개인 사업, 직장, 선후배, 인간관계, 환경, 심지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두려움’이 사소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커다란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감기가 독감으로 발전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 짧은 시간 얼마나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맞서는 것,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며, 지인에게 ‘두려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아도, 딱히, 해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형식적인 대답에 거기서 거기다.

많은 사람은 말하곤 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오는 일은 없을 거야’,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야’, ‘불행 따위는 다 꺼져버리라고 해’, ‘장난해?’, ‘두려움, 그게 무엇인데?’, ‘장난해?’, ‘나에게 묻지 마’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일 것이다. 이런 반응의 기저에는 자신을 위한 온갖 해석으로 ‘두려움’을 남의 일로 넘겨버리려는 회피성 발언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그러나, 막상 ‘두려움이 내 눈앞에 다가온다면’ 이라는 가정법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것도 날벼락,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그 충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이때, 가장 핵심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무조건 피하려는 태도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확률 높은 게임에 도전해야 한다. 피하는 것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직접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무조건 피하고 보자’라는 대책 없고 안일한 태도를 버리자. 대신에 ‘두려움’에, 당당하게 두 눈 부릅뜨고 상대방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두려움에 대처하기에는 인간의 심리가 너무 약하다. 아마도 열에 아홉은 위협이나 위험을 느끼는 삶의 요소가 다가오면 움츠리고 피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말이 쉽다. 말은 누가 못하겠는가? 많은 말이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다. 위협과 위험에서 되지도 않는 엉뚱한 행동이 나 아닌 동료나 가족을 더욱더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박타박 걸어가는 이 길에
두려움이란 없다
그 어떤 의미도, 느낌도, 두려움이란, 존재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
위협하고 위협적인 공포가
나를 엄습해도 좋다
그따위로 나를 무너뜨리려
하다니 하하하 가소롭다

그래 어디 덤벼봐 덤벼보란
말이다
의기양양 큰소리로 시장판을
만들면 밤이 내린다
별은 밝아온다, 멀리서 부스럭
부스럭 낙엽 밟는 소리 가득하다
그 한 자락, 소리에 세상은
동작 그만이다
주파수 최고치를 향해 말초신경 곤두세우며 밀려오는 두려움
어슴푸레 어두운 불빛 따라
고라니 울음소리 귓가에 닿으면
두려움+두려움+공포+공포+죽을 것 같은 숨 막힘에 고막이 찢어진다

안돼, 안돼, 허공을 휘젓는
금가락지 짝지어 손가락
꽁꽁묶으며
덤벼라, 내가 가는 길에
두려움이란 없다+없다+없다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얼굴에 들었던 수저가 슬그머니 내려온다

그놈은 오늘도, 내일도 그놈,
그놈이 유치한 카테고리에서
두려워할 때
어디 그런가 보자, 나도 두려운가,
두려움에 맞서는 길
두려움이 없는 길, 그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길,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
-박여범, ‘두려움에 맞서는 길’ 전문-

위의 시에서 화자는 ‘두려움’ 대하여 당당하게 맞설 것을 강조하고 있다. /타박타박 걸어가는 이 길에 두려움이란 없다/그 어떤 의미도 느낌도 두려움이란 존재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위협하고 위협적인 공포가 나를 엄습해도 좋다/그따위로 나를 무너뜨리려 하다니 하하하 가소롭다/저런, 너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두려움’이란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바탕으로 시를 전개하고 있다.

혼자라면 어려웠을 ‘두려운’ 길도 너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도, /어슴푸레 어두운 불빛 따라 고라니 울음소리 귓가에 닿으면/두려움+두려움+공포+공포+죽을 것 같은 숨 막힘에 고막이 찢어진다/안돼, 안돼, 허공을 휘젓는 금가락지 짝지어 손가락 꽁꽁 묶으며/덤벼라, 내가 가는 길에 두려움이란 없다/처럼 ‘두려움’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는 위협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옛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다. 잘난 척이 세상을 판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바라겠는가? 오직, 비둘기의 눈으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며, 악의 블랙홀로 빠져드는 실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사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인간이다.

물론 사물이나 동물, 특정하지 않은 존재로부터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찌 보면, 평안하고 행복한 삶 속에서 느낄 수 없다. 이처럼, 두려움과 공포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설정이 아니더라도 아주 가까운 곳에 커다란 무덤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직면하면 더 큰 정신적인 압박을 받는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두려움’은 심리적인 상황극이라 할 수 있다. /오늘도 그놈, 내일도 그놈, 그놈이 유치한 카테고리에서 두려워할 때/어디 그런가 보자. 나도 두려운가, 두려움에 맞서는 길/두려움이 없는 길, 그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길, 그 길은 어디에 있는가/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주어진 사소한 위협에도 쉽게 극단적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것의 출발점이 ‘두려움’이다.

독자제언

불법무기류 꼭 자진신고 하세요

불법무기류로 인한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 대상으로는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과 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의무가 불이행된 총포·화약류 등이며 자진신고 시 불법무기류의 출처에 대해 불문에 부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된다. 그리고 신고자가 소지를 희망하고 총포화약법 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허가를 하고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가까운 경찰관서, 군부대에 신고하면 되고 112신고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곤란한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진행한다. 또 전화, 문자, 우편, 인터넷 등 사전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총포화약법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할 것과 주변에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한다. 김재옥 부안경찰서 생활질서계

사 설

고창군의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본격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창군은 무장 기포지에 기념관과 역사광장을 만드는 한편 전봉준 장군 생가터에 기념관을 지을 계획이다.

특히 고창 군민들은 전봉준 장군 동상을 세우기 위해 성금을 모으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군의 숙영지 아래 위치한 (구)신왕초등학교를 개발해 동학 교육관과 동학 체험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고 나아가 지역민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성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와 역사 탐방객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자랑스러운 의향 고창의 기상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운동은 한국 근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다.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조 말 중세적인 체제 모순을 개혁하고, 조선조 수취 체제의 문란으로 핍박받고 있던 힘없는 백성들이 앞장섰다.

수탈의 폐해를 혁파하고 신분 차별을 타파하여 안정된 삶을 얻고자 일어난 것이다.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간섭과 침략에 맞서 저지하고자 하였다. 19세기 후반 조선이 처한 체제 모순과 외압의 시대적 조건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당시 여러 가지의 변혁 운동 가운데 시대적 역사 과제를 가장 올바르게 인식하였던 변혁 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1월 초 공주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거의 끝났다.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도 모두 체포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수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항전이 이듬해 1월까지 계속되었다. 1895년 7월까지도 산발적인 항전은 진행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8종의 한국사 교과서 전체에 고창 무장봉기(무장기포)의 내용이 수록됐다.

이미 고창 군민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고창 군민의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이는 일이다.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ㅁ

관광 개발 주력하는 북한

북한이 최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 계획을 승인했다. 동해안 지구는 금강산 관광특구도 포함돼 있다. 북한이 금강산 자체 개발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관광산업을 통해 대북제재 우회로를 찾고 있다.

동해안 지구는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 벨트’로 주력해 온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와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금강산까지 아우르는 지역이다. 북한은 이미 원산을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해 왔다.

원산 해변은 희고 고운 모래톱이 10리나 이어져 있어 ‘명사십리’라 불린다. 이곳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가 건설되고 있다. 대북제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에도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개발은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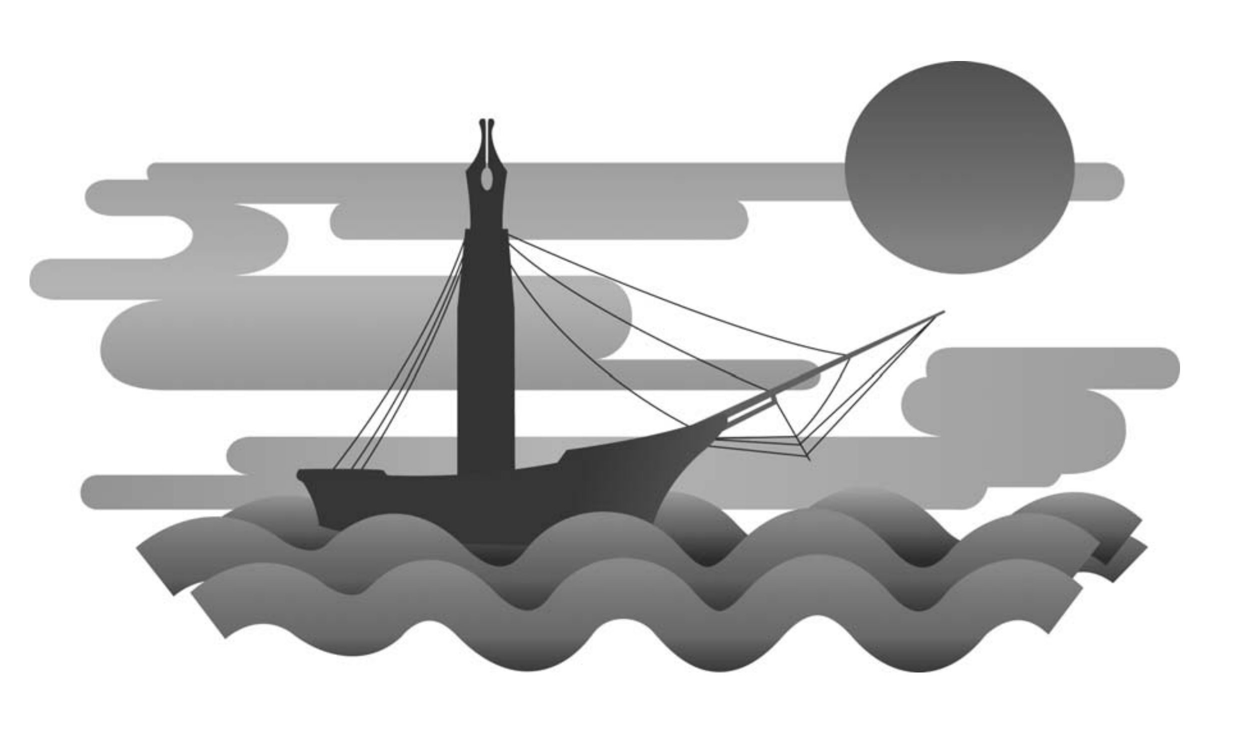
전국에서 모여든 돌격대원들과 군인들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할 정도로 속도전을 벌였다. 그러나 건설 마감 단계에서 코로나19로 국경까지 봉쇄되면서 완공 시점을 지키지 못했다.

양덕온천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대적인 준공식과 함께 문을 열었다. 북한 매체는 온천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주민 모습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양덕온천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개장 한 달여 만에 문을 닫았다가 지난 2월 재개장했다.

당장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관광산업을 통해 내수 경제라도 살려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 투어스는 오는 7월부터 출발하는 7박 8일 일정의 북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선 북한 관광이 당장 몇 개월 안에 재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비교적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적 고립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이런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